

| 풍경으로의 여행 |

하늘길을 걷는 짜릿한 쾌감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

글·사진 정철훈 여행작가

서울예전 사진과를 졸업했다.

사진이 좋아 여행을 시작했고 여행이 좋아 여행작가로 살아간다.

- 2017~2018년 한국관광공사 <추천 가볼 만한 곳> 선정위원
- 2013~2014년 코리아 실크로드 탐험대 역사기록팀(오아시스로, 해양로 탐험)
-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 2005년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선정 <2030 청년작가 10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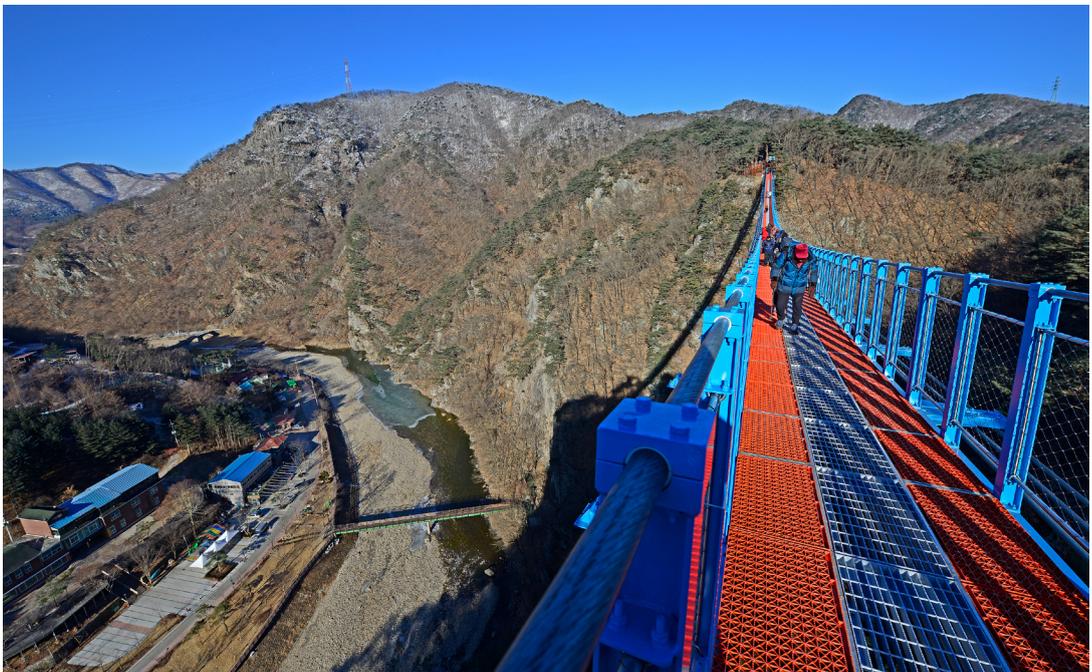
산악보도교는 산행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다. 끊긴 등산로를 잇고 험로의 안전을 확보하는 게 산악보도교의 존재 이유다. 경기 파주 감악산의 출렁다리, 경북 봉화 청량산의 하늘다리, 전북 진안 구봉산의 구름다리 등 우리나라 대표 산악보도교 대부분이 그런 목적으로 설치됐다. 하지만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는 조금 다르다. 편의보다는 재미에 무게중심이 실렸다. 계획 단계부터 철저하게 관광자원으로의 활용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원주의 핫플레이스, 스릴 만점 소금산 출렁다리는 그렇게 태어났다.

간현관광지의 새로운 명물, 소금산 출렁다리

소금산 출렁다리는 원주를 대표하는 여행지, 간현관광지에 있다. 소금산(343m)이 뒤를 받치고 섬강과 삼산천이 어우러진 풍경이 아름다운 곳이다. 조선시대 가사문학의 대가 송강 정철은 ‘관동별곡’에서 그 아름다움을 “한수를 돌아드니 섬강이 어디메뇨, 치악이 여기로다”라고 노래했고, <토정비결>로 유명한 토정 이지함은 전국 명소를 돌다 이곳 경치에 반해 상당 기간



국내 최장최고를 자랑하는 소금산 출렁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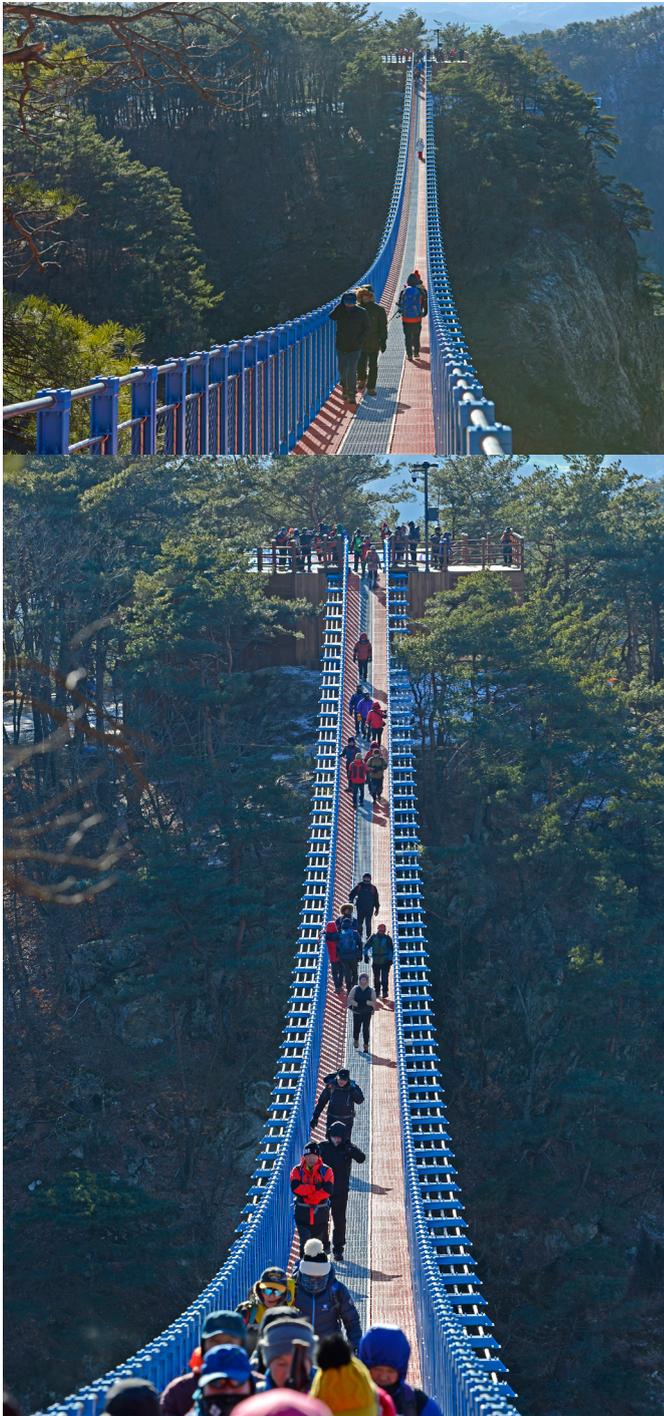
소금산 출렁다리는 길이 200m의 국내 최장 산악보도교다.



간현관광지는 1990년대까지 최고의 피서지로 사랑받던 곳이다.

머물며 유유자적했다고 전한다. 7080세대에게도 간현관광지는 특별한 공간이다. 1990년대까지 최고의 피서지로 사랑받던 간현관광지는 당시 대학생들에게 섭외 1순위 MT 장소였기 때문. 강변 모래톱에 둘러앉아 통기타 치며 노래하는 대학생들의 모습은 이제 추억으로 남았지만 유려한 물길과 우뚝한 산세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아름답다.

2000년대 들어 침체기를 걸던 간현관광지가 최근 새롭게 뜨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바로 출렁다리. 우리 산에는 이미 출렁다리 혹은 구름다리, 하늘다리라 부르는 산악보도교가 꽤 많은데, 왜 하필 소금산 출렁다리일까. 자, 그럼 소금산 출렁다리를 만나기 전에 이 다리의 매력부터 하나하나 짚어보자. 일단 소금산 출렁다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산악보도교다. 길이가 200m나 된다. 소금산 출렁다리가 생기기 전까지 국내 최장 산악보도교였던 파주 감악산(675m)의 출렁다리 길이가 150m이니 제법 차이가 난다. 다음은 지상고. 소금산 출렁다리는 우리나라 산악보도교 가운데 가장 높은 지상고를 자랑한다. 앞서 언급한 파주 감악산



소금산 출렁다리의 지상고는 100m나 된다.

출렁다리의 지상고는 45m, 국내에서 가장 높은 해발 800m에 설치된 봉화 청량산(870m) 하늘다리의 지상고도 70m 정도다. 그럼 소금산 출렁다리의 지상고는? 아파트 40층 높이와 비슷한 100m다. 소금산 출렁다리를 국내 최장·최고의 산악보도교라 부르는 이유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놀이기구보다 짜릿한 스릴

소금산 출렁다리의 진정한 매력은 놀이기구 못지않은 짜릿한 스릴을 맛볼 수 있다는 점이다. 비밀은 바닥. 소금산 출렁다리는 길이 200m에 이르는 바닥 전체에 격자형 강철 소재(스틸 그레이팅)를 깔았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길고, 가장 높게 만든 것도 부족해 바닥까지 송송 뚫어 놓았다는 말씀. 활짝 열린 하늘과 구멍 뚫린 바닥. 거기에 굵은 철사로 엮은 난간까지. 사망이 제대로 뚫렸으니 다리 위에 서는 것만으로도 오금이 저릴 수밖에 없다. 주탑



소금산 출렁다리는 아래가 흰히 내려다보이는 격자형 강철 소재로 바닥을 마감했다.



소금산 출렁다리는 90t의 무게와 초속 40m의 강풍에도 견딜 수 있게 설계됐다.

없이 제작한 현수교의 특성상 위아래로 흔들리는 출렁다리의 기본에도 무척 충실하다. 걷는 것만으로도 웬만한 놀이기구보다 짜릿한 스틸을 즐길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심장 약한 이용자를 위한 배려도 잊지 않았다. 바닥 중앙을 뺀 양옆을 조금 더 촘촘한 스틸 그레이팅으로 마감한 것. 그래도 여전히 발아래가 훤히 내려다보인다는 건 함정이다. 소금산 출렁다리로 연결된 바위오름터에서 솔개미둥지터 구간은 산길을 따라 우회하는 코스도 있어 오고 가며 전혀 다른 분위기의 길을 걸어볼 수 있다는 점도 매력이다.

모든 놀이기구가 그렇지만 스틸의 기본은 안전이다. 소금산 출렁다리도 최고라는 수식어에 걸맞은 안전설비를 갖췄다. 지름 40mm 특수도금 케이블을 8겹으로 꼬아 연결한 소금산 출렁다리는 70kg 성인 1,285명, 그러니까 90t의 무게를 버틸 수 있고, 초속 40m의 바람에도 끄떡없게 설계됐다. 초속 40m의 바람은 보퍼트 풍력계급표에서 최고 등급으로 분류되는 '썩쓸 바람(Typhoon)'보다 훨씬 강한 바람이다. 1.5m의 다리 폭은 두 사람이 교행하기에 넉넉한 너비다.

소금산 출렁다리의 아찔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발품은 필수다. 해발 100m 높이에 설치된 시설이니만큼 그 정도는 올라야 한다는 얘기다. 소금산 등산로 입구에서 출렁다리



소금산 출렁다리로 가는 등산로 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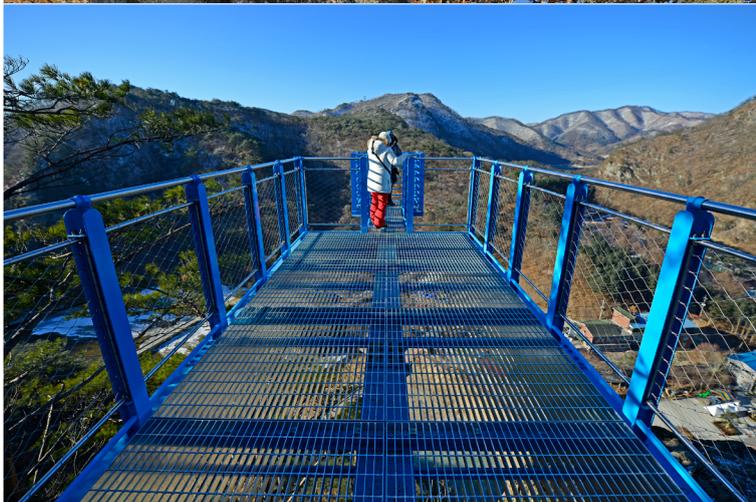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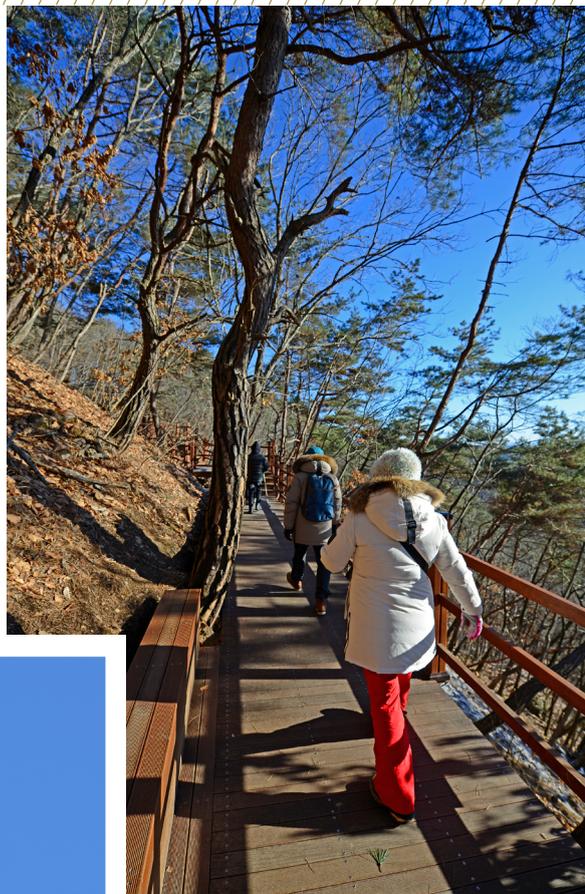
가 있는 바위오름터까지 500m. 제법 가파른 길이지만 전체 구간에 산뜻한 나무 계단을 설치해 남녀노소 누구나 편히 오를 수 있다.

출렁다리에 발을 들이기 전, 위밍업 삼아 스카이워크를 걸어보는 것도 좋다. 출렁다리 옆 삼산천이 바라보이는 절벽 위로 뻗어 나온 스카이워크는 짧은 거리지만 출렁다리와 마찬가지로 바닥 전체를 스틸 그레이팅으로 처리해 출렁다리의 스틸을 미리 체험해 보기에 안성맞춤이다. 동절기(11월~2월) 소금산 출렁다리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료는 5,000원이다.

절경 품은 작은 금강산을 만나다. 소금산

소금산 출렁다리를 걸으며 절경을 감상했다면, 작은 금강산이라 부르는 소금산 산행에 도전해 보는 것도 좋다. 아니, 꼭 한 번 올라보기를 권한다. 소금산에 올라야 비로소 'S'자로 휘

등산로 입구에서 출렁다리까지는
산뜻한 나무계단이 설치돼 있다.



소금산 출렁다리 옆에 있는
스카이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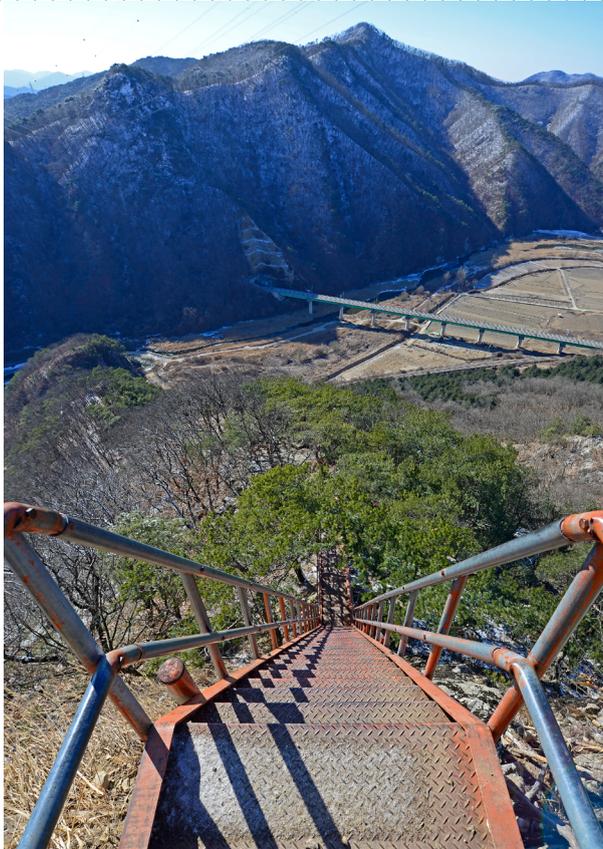
솔개미둥지터에서 산정까지는 완만한 경사와로 능선으로 이어진다.



소금산 암봉에서 만날 수 있는 간현협곡의 절경



암봉 위 주목



'404 철계단'이 시작되는 직벽 구간

돌아 섬강에 몸을 쉬는 삼산천과 삼산천을 포근히 감싼 소금산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 송강 정철과 토정 이지함이 지극히 사랑한 간현협곡의 아름다움은 이곳에서 완성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출렁다리가 끝나는 슬개미둥지터에서 소금산 정상을 잇는 800m 산길은 완만한 경사와 능선이 번갈아 이어져 누구나 큰 힘들이지 않고 오를 만하다. 한데, 막상 정상에 서면 이게 뭔가 싶은 생각이 든다. 정상석이 아니었다면 산정인지도 모르고 지나칠 정

간현관광지 아래에서 본 출렁다리와 스카이워크





도로 맛있는 풍경 때문이다. 하지만 실망은 금물. 이정표를 쫓아 '404 철계단' 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거짓말처럼 하늘이 열리면서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진다. '와' 하는 감탄이 절로 나오는 멋진 풍광이다. 방금 지나온 소금산 출렁다리는 물론 삼산천과 섬강, 그리고 병풍처럼 솟은 다부진 치악산도 손에 잡힐 듯 가깝게 보인다. 암봉 위에 홀로 선 주목도 그 자태가 여간 멋스러운 게 아니다.

암봉을 지나면 본격적인 하산길이다. 소금산의 명물 404 철계단이 이곳에서 시작된다. 철계단과 흙길을 번갈아 걸어야 하는 하산길은 바위가 많고 가팔라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나마 다행인 건 하산 코스가 남쪽에 면해 한겨울이지만 결빙 구간이 거의 없다는 것. 그래도 겨울 산행, 특히 내리막에서는 안전을 위해 아이젠을 반드시 착용하는 게 좋다. 가파른 404 철계단이 부담스럽다면 무리해서 진행하기보다는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것도 한 방법이다. 겨울 산행에서 무모한 시도는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 소금산 원점회귀 산행은 전체 3.5km 정도로 길지 않아 천천히 걸어도 3시간 정도면 충분하다.

여행정보

소금산 출렁다리

주소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소금산길 12

문의 033-731-4088

맛집 산야초를 찾아서 산야초닭백숙 /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간현옷말길 108 / 033-731-3530

운채 병잎황태밥 / 강원도 원주시 고문골길 47 / 033-747-1993

장터추어탕 추어탕 /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문막시장1길 52-17 / 033-735-2025

숙소 호텔K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29-3 / 033-812-3000

치악산호텔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치악로 3371-3 / 033-731-7931

베니키아 호텔비즈니스 강원도 원주시 만대로 7-1 / 033-748-0100